

행운과 달리 '행복'은 어떠한 사건이 아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호수와도 같아서 무심코 던진 돌맹이 하나에도 금세 파동이 일곤 하죠. <행복> 편집부는 이처럼 고요한 우리의 심연을 깨우고 행복의 물결을 퍼져나가게 할 일상 속 사물을 찾아 매달 소개합니다. 물론 독자의 제보도 환영하니 메일로 연락해주셔도 좋습니다.

담당

정경화 기자 hwa@design.co.kr

사진

조현화랑 제공

최병훈 개인전

<머무는 침묵Lingering Silence>

기간 8월 2일까지

장소 조현화랑 해운대(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8번길 5)

조현화랑 서울(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 신라호텔 지하1층)

문의 02-2233-8852



Choi Byung Hoon, 'afterimage of beginning 026-642', Black finish on ash, natural stone, AL sheet, 185×83×38cm, 2026



최병훈 작가는 국내 아트 퍼니처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 아티스트다. 디자이너의 감각, 아티스트의 창의성 그리고 공예가의 기술을 집대성해 '가구'라는 실용적 사물을 예술과 결합시킨다. 재료 본연의 생명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 시대의 미감과 가치를 찾아가는 투철한 고민의 결과물로, 투박함과 부드러움, 오브제와 공간, 순간과 영원의 시간, 그리고 물리적 구조와 정신적 대상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

고요한 침묵, 머무는 침묵

최근에 침묵의 순간을 만난 적이 있나요? 늘 사람과 사물로 번잡한 도시에서 고요한 시간은 좀처럼 허락되지 않습니다. 요가를 하고, 자연으로 떠나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은 어쩌면 그런 소란을 비집고 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리와 움직임의 파동이 사라진 상태를요. 최병훈 작가의 가구를 마주했을 때도 비슷한 침묵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억겁의 시간을 고스란히 품은 바위와 인간의 손으로 가다듬은 목재가 맞닿아 극도의 긴장과 균형에 이른 모습을 보면서요.

그의 작업은 채석장의 돌을 작업실로 옮겨놓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최병훈 작가는 곧바로 돌에 손을 대는 대신 오래 곁에 머무르면서 형상과 결을 살피고, 그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질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개입합니다. 목재를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듬을 것과 남겨둘 것을 가려내고, 재료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천천히 갈고 깎으며 기다립니다. 재료와 작가의 마음이 함께 무르익었을 때 한 뼘씩 차분한 손길을 엮어갑니다.

완성된 장은 거친 원시성을 품은 자연석이 격자 구조로 짜 올린 목재를 받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여러 겹의 옷칠을 입은 목재에서는 은은하게 나뭇결이 배어 나오고, 그 아래 놓인 돌은 자연이 지나온 시간을 지금의 공간으로 불러들입니다. "침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침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내면에 스며들고, 공간과 시간 위에 천천히 내려앉으며, 마침내 사물의 깊이가 된다." 작가 노트 속의 문장처럼 서로 다른 물질이 모여 하나의 존재로 완결된 가구는 단순히 쓰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색과 명상을 위한 자리가 됩니다. 고요한 침묵과 함께 잠시 멈추어 설 순간을 건네면서요. 🍷